

JY가 그릴 뉴 삼성은 “M&A·4차혁명·사회공헌”

구속수감 353일만에 일선에 복귀 반도체 호황 후 대비책 마련 몰두 투자·고용확대로 일자리정책 부응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 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풀려나면서 삼성그룹은 경영 정상화에 시동을 걸게 됐다.

4차 산업혁명을 앞두고 급변하는 글로벌 기업환경, 강화되는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삼성의 신성장 동력 창출 필요성 등을 감안하면 건강 상태가 양호한 이 부회장이 복귀를 늦출 이유가 없다.

삼성그룹은 이날 이 부회장이 뇌물 혐의가 유죄로 판결 난 데 대해서는 유감을 표시하면서도 1심에서 인정됐던 핵심 혐의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자 “진실이 통했다”면서 풀려난 것에 대해 안도감을 나타냈다.

이 부회장이 이날 판결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수감된 지 353일 만에 경영 일선으로 복귀할 수 있게 됐다.

이건희 삼성 회장이 3년 넘도록 와병하고 있는 가운데 이 부회장마저 구속되면서 삼성그룹은 ‘총수 부재’의 비상경영 체제에 들어야 했다.

이 부회장이 집유로 풀려나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그룹 계열사들은 치열한 기업 간 글로벌 경쟁에 다시 본격적으로 뛰어 들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이 부회장은 약 1년간 경영 일선에서 벗어나 있었지만 사장단 인사나 주주환원 확대, 주식 액면분할 등 주요 경영 현안은 옥중에서도 재판에 대응하는 와중에서도 꾸준히 챙겨온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신속한 경영 정상화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재계에서는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그동안 사실상 중단됐던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M&A(인수합병)와 대규모 투자 등이 활기를 띠 것으로 보고 있다.

글로벌 IT·전자업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의 도래와 함께 인공지능(AI), VR(가상현실)·AR(증강현실), 사물인터넷(IoT) 등을 미래 먹거리로 보고 이 분야 역량 강화를 위한 M&A가 활발하게 이뤄져 왔다.

하지만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 자동차 전장(전자장비)업체인 ‘하만’을 인수한 뒤 굼직한 M&A가 실종된 상황이 었다.

또 삼성전자는 지난해 메모리 반도체의 ‘슈퍼 사이클(장기 호황)’에 힘입어 사상 최대 실적을 내면서도 ‘반도체 호황 이후’에 대한 대비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기도 했다.

그동안 삼성전자가 총수 부재로 인해 대형 M&A에 대한 결단이 어렵다고 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집행유예·석방까지 주요 일지	
2017년	
1월10일	특검, 제2의 최순실 태블릿PC 속에 삼성 직원금 관련 이메일 문서 다수 발견 발표
12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피의자 소환 발생 조사
16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청구
19일	법원, '뇌물-횡령'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기각
2월3일	특검, 공정거래위원회 압수수색
10일	특검, 정재찬 공정위원장 소환조사
13일	이재용 부회장 2차 소환조사
14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영장 재청구
17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28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 구속 기소 뇌물공여 등 5개 혐의
3월	법원, 3차례 공판준비기일 진행
4월7일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4월8일	이재용 부회장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7일	이재용 부회장 등 결심공판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징역 12년 구형 및 삼성 전직 임원 4명 징역 10~7년 구형
2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1심 징역 5년 선고 및 모든 혐의 유죄 인정
12월27일	특검, 이재용 부회장에 2심도 징역 12년 구형
2018년	
2월5일	법원, 이재용 부회장 2심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선고, 353일 만에 석방

소해한 만큼 이 부회장이 경영에 복귀하면 글로벌 M&A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투자와 고용 확대 등의 조치도 있을 수 있다. 정부의 일자리 창출 정책에 부응해 그룹 차원에서 투자나 고용 확대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재계 일각에서는 이건희 회장이 지난 1988년 3월 22일 창업 50주년 기념식에서 ‘제2창업’을 선언한 지 30년만에 이 부회

장이 다음달 ‘제3창업’을 선언하며 삼성의 새로운 청사진을 내놓을 것이라는 예상도 내놓고 있다.

신뢰회복을 위한 경영행보도 예상된다. 이번 사태가 과거 관행처럼 여겨져 온 정경유착에서 비롯된 만큼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새로운 경영 행보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그가 재판 중에 ‘헌신’ ‘나누는 참된 기업인’ ‘사회에 대한 보답’ 등을 수차례 언급한 것도 이런 자성론을 토대로 신뢰회복에 나설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측근으로 분류되는 이인용 사장이 삼성 봉사단장에 임명된 후 “저희가 상당한 규모로 (사회공헌 예산을) 집행해 왔지만, 한국을 포함해서 글로벌 사회에서 ‘삼성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뚜렷하게 떠오르는 게 없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고 밝힌 것도 비슷한 맥락으로 읽혀진다.

이에 따라 문제의 정부가 강조하는 ‘상생협력’, ‘동반성장’을 위한 추가 방안과 함께 최근 강조되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움직임도 이날 석방을 계기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재계 관계자는 “집행유예로 풀려나긴 했으나 대법원 판결까지 가야 하는 만큼 활동에 제약은 불가피할 것”이라면서도 “오랜 시간 자리를 비운 삼성전자를 비롯한 삼성 계열사의 국내외 경영 활동들을 꼼꼼히 챙겨볼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은미 기자 21cindun@metroseoul.co.kr

재계 “국가경제 도움… 미래사업 추진 기대”

재계·외신들 반응

영국FT·BBC 등 외신들 일제 속보

재계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며 석방된 것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대한상공회의소 이경상 경제조사본부장은 이날 “재판부에서 사법기준에 따라 판단한 결과로 본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의 글로벌 경영이, 특히 4차산업 혁명기의 대응전략과 미래 신사업이 더욱 과감하게 추진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배상근 전무도 “이

번 판결로 인한 삼성의 대외 신인도 회복, 경영 활성화 등의 효과는 개별 기업을 넘어 우리 경제 전반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며 “삼성이 이번 재판 과정을 무겁게 받아들여 투자, 일자리 확대 등 사회적 역할에 보다 적극적인 노력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번 판결을 통해 지금까지 제기된 의혹과 오해들이 상당부분 해소된 만큼, 삼성그룹은 경영공백을 매우고 투자와 일자리 창출 등 국가 경제 발전에 더욱 매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 안근배 무역정책지원본부장도 “이번 판결을 계기로 삼성그룹은 무역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국가경제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해주기를 기대한다”

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 김경만 경제정책본부장 “우리사회에 만연된 정경유착은 반드시 근절돼야 하지만 우리경제를 둘러싼 글로벌 경영환경이 날로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인에 대한 장기 구속수사는 해당기업과 전제 국가경제에 막대한 손실을 야기할 수 있음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요 외신들도 이 부회장의 집행유예 선고소식에 긴급 속보로 전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이날 “삼성의 사실상의 리더인 이재용이 뇌물을 준 혐의로 구속된지 약 1년 만에 풀려나 한국 최대의 대기업에 강한 안도감을 선사했다”고 전했다.

BBC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감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으로 석방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5일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옥에서 해방됐다”는 속보와 함께 그가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을 긴급 타전했다.

판결이 나오기 전부터 실시간으로 현

장 소식을 전한 블룸버그통신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 받아 353일 만에 풀려났다”고 보도했다.

/정은미 기자

JY 첫 행선지 ‘이건희 회장 병실’… 첫 공식행보 ‘평창 올림픽’

글로벌기업 CEO 교류 등 전망

1년 만에 풀려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행선지는 이건희 회장이 와병 중인 삼성서울병원이었다.

이 부회장은 5일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 집행유예 4년 판결을 받은 이후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개인물품을 챙겨 나온 뒤 기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다시 한 번 죄송하다”며 “1년간 나를 돌아보는 정말 소중한 시간 이었고 앞으로 더 세심히 살피겠다”고 밝혔다.

이어 “(부친인) 이건희 회장을 보러 가겠다”고 말한 후 차량에 탑승해 서울 일원동 삼성서울병원으로 이동했다.

구치소에 수감된 지난 1년여간 이 부회장은 부친 이건희 삼성 회장을 만나지 못했다.

재계는 이 부회장이 경영일선에 바로 복귀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의 첫 공식행보 일정은 오는 9일 개막하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될 것으로 보인다.

삼성은 평창동계올림픽의 공식파트너다. 이건희 회장을 필두로 이 부회장도 올림픽 유치에 총력을 기울였지만 구속 수감으로 이렇다 할 활동을 할 수 없었다.

이에 따라 개막식 등 주요 행사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구속으로 정체된 글로벌 스킨십을 회복하기 위해 해외출장을 택할 것이라

관측도 있다. 이 부회장은 구속 전에도 미국 선밸리 콘퍼런스 출장은 물론 해외에서 삼성을 방문하는 글로벌 기업의 대표들을 만나는 데 많은 시간을 투자했다.

장기간 공백으로 글로벌 기업 CEO와의 네트워크 교류가 단절된 만큼 해외 출장 등을 통한 글로벌 행보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이달 말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18’이 첫 행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또 ‘아시아판 다보스포럼’이라 불리는 중국 보아오포럼의 참석이 전망된다. 보아오포럼 이사회에는 세계 각국의 정·재계 인사들이 활동 중이다. /정은미 기자

제53차 초보자를 위한 부동산 경매교육

~~200,000원~~ → 60,000원 (85% 할인)

- (평일반) 2018년3월7일~3월29일
매주 수, 목요일 오후 7시30분~9시30분 / 총8강
- (주말반) 2018년3월10일~3월31일
매주 토요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30분 / 총8강
- 현장교육 (별도옵션) : ~~300,000~~ → 130,000원
3월 18일(일), 3월25일(일), 3월27일(화)

강사: 김민석

※사전 수강 신청 필수 - 홈페이지 참조
www.leadersauction.com

교육문의 02)521-9111 (강남역 5번출구)